

자체 가공원료를 확보하려고 하거나 또는 수출을 모색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인정해도 부업 양돈농가들의 소득증대와 서로 상충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장기적으로 가공산업 육성, 기업양돈
가급적 억제, 돼지수급 및 가격안정 전담기구 만들어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모든 수단을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이

다. 아마도 양돈과 관련된 현재의 여러 기구를 통합해서 명실상부한 하나의 기구를 만들고, 이들로 하여금 “돼지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떠맡도록 전문화시키지 않으면, 양돈산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상에 아이디어만 가지고 모든 일이 쉽게 되어진다면, 오늘날 우리 인간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쉬운 일이 없다.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그보다 더 큰 노력과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

돼지
법정
전염병의
예방대책

특

집

김 범 래

(농수산부 가축위생과장)

가축전염병의 예방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중앙, 각도, 시, 군, 읍, 면, 리, 등에 이르기까지 방역관계자와 가축사육자가 긴밀히 협동하는 예방체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최근에는 가축사육두수의 증가, 집단사육규모의 확대, 가축 및 축산물의 유통증대 등으로 가축 방역은 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돼지의 법정전염병은 다음과 같다.

○ 제 1 종 가축전염병 : 구제역, 탄저, 부루세

라병, 유행성뇌염(일본뇌염), 결핵병, 돈단독, 아프리카돈콜레라, 돈콜레라, 돈수포병, 특소푸라즈마병, 가성광견병, 출혈성 패혈증

○ 제 2 종 가축전염병 : 돼지전염성 위장염, 돼지헛센병, 돈두, 수포성구내염이다.

이러한 법정전염병은 그 최초 발견자가 환축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해당 방역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한 발생, 만연 등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여 보고 및 처리를 조기 실시하므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에는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그 소유자와 관련 수의사가 지체없이 관할 행정기관(시장, 구청장, 읍면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기관에서는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 주사, 약욕 또는 투약,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가축의 집합 시설에 대한 설비명령, 제 1종 전염병에 대한 격리와 이동제한, 살처분 의무사항이 있으며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특히 돼지콜레라 이환돈에 대하여는 '83. 1. 15일부터 농수산부 고시에 돼지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해 놓고 현행 시장가격의 50%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83년만 해도 1,058두를 살처분, 4,000만원을 해당 농가에 보상하여 주었다.

또한 정부에서는 매년 영세양돈 농가를 위주로 돼지 전염병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84년에도 돼지콜레라 3,900천두, 돼지일본뇌염 1,000천두, 위축성비염 20천두, 돼지전염성위장염 300천두에 대하여 영세 양돈농가 위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50두 이상 다두사육농가에 대하여는 자율방역을 실시토록 지도계몽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주도의 방역에서 사육농가 위주의 자율방역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사육두수의 증가에 따라 부족되는 전문인력을 예방주사나 소독 등을 직접 실시하는 관 주도 방식을 지양하고 사육농가에 대한 예방교육, 질병 발생예찰업무, 검진사업, 병성감정업무에 전담케 하고, 사육농가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방역에 참여케 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하고 일반적인 방역관념을 전환케 하여 효율적인 방역체제로 이끌어 가고자 한다.

그리고 도축검사시 검사원으로 하여금 전염병 이환축에 대하여 철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전염병 이환축의 은혜와 시장 유출을 사전방지함은 물론 발생

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인 예찰업무 강화로 방역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자 한다.

또한 금년부터 일부 실시하고 있는 혈청학적인 역학조사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모든 예방접종으로 인한 항체가 지속기간을 조사, 모돈 및 자돈에 대한 예방주사 실시 적기를 결정하여 효과적인 면역이 되게 하고 양돈장의 모든 항체가를 조사함으로써 예방주사를 정확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고 이러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예방약에 대한 효과유무까지 확인이 되게 하는 국가사업을 하고자 하며 이는 근본적으로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근절시킬 수 있는 방역대책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국내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는 돼지의 법정전염병에 대하여 주요증상 및 예방접종을 간략하게 기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돈콜레라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병원체이며 주요 증상은 체온이 40~41℃도 오르고 몇일이 지나 죽는 경우와 열이 일정치 않고 20~30일이 지나 죽는 경우도 있으며 처음에 열이 나고 사료를 먹지 않으며 변비, 혈액성, 설사, 후구마비, 호흡곤란 및 몸에 얼룩무늬가 생긴다. 예방법으로는 예방주사와 믿을 수 있는 곳으로부터 돼지를 구입하는 것인데 예방주사는 발생위험이 있는 농가는 분만후 첫젖을 먹기전 새끼돼지에 주사하고 발생위험이 없는 농가는 생후 30~40일령에 1차, 50~60일령에 2차에 걸쳐 두번 주사하고 모돈은 분만 때마다 3주후에 1회주사를 하는 것이며 시장이나 돼지수집상으로부터 돼지를 구입하였을시는 격리돈사에서 3주이상 격리사육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 사육돈사로 옮기도록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돼지콜레라에 신고함과 동시에 가까운 가축위생시험소에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돈단독

돼지단독균이 병원체이며 주요증상으로서는 체온이 41~42℃로 오르고 3~4일 후에 폐사 하며 만성형은 변비후에 설사를 하고 3일후부터는 발진과 딱지가 형성되는 것이다. 예방대책으로는 봄과 가을에 예방접종을 하고 돈사를 항상 청결히 하고 위생적인 사양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돼지일본뇌염

일본뇌염바이러스가 병원체이며 성돈은 감염되어도 발병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새끼돼지는 선회운동, 흥분, 경련 등의 신경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 분만 예정일 전후에 미이라모양의 유사산을 한다. 예방대책으로는 뇌염모기를 구

제하고 5~6월경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되 전년 도에 예방접종을 맞은 돼지는 1회 생후 여름을 지나지 않은 돼지는 1회 실시후 3~4주후 재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염성 위장염

전염성 위장염바이러스가 병원체이며 주로 생후 2주이내의 새끼돼지에 발생하고 식욕부진, 구토, 회백색 및 백녹색의 설사를 하며 성돈은 거의 무증상으로 회복이 되나 새끼돼지는 같은 돈사에서 동시에 발병되어 100%폐사를 한다.

예방은 분만돈사의 보온관리를 철저히 하고 임신된 모돈에 분만 5~7주전과 2~3주전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축산정책이
걸어가야 할
方向은 어디가

「畜産法改正안을 보고」

그것은 중산전업축산
농가의 육성이다.

특 []
집 []



한 병 용
<(주)코리아 화암>

농촌 인구가 도시로 대탈출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물가를 법으로 묶고 생산과 가격을 일방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

1) 다시제기되는 農村문제, 畜産문제

석가는 자비로 중생을 계도하고 예수는 사랑으로 구세하고, 孔子는 유교의 가르침으로서 이 세상에 자비 사랑 도덕이 충만하기를 기구하였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자비와 사랑과 人倫도덕

이 우선하는것이 아니라 5천년의 역사를 지탱 해왔고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 일깨워준 倫理性과 道德性を 존중하던 價值體系는 무너지고 오히려 物理的힘이나 法律的規制가 전면에 나서고 있는것 같은 기류가 팽배하여 뜻있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여러방면에 걸쳐 民主主義의 골격을 이루는 人間존중의 思考는 퇴락하고 目的第一主義의 思考나 行動 그리고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않는 사회풍조가 만연되어 여